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 대폭 축소되나

작년 부지 3만㎡ 이어 압축기 제조공장도 매각 추진

노조원 30여명 매각 반대 집회 열어 저지 나서

지난해 하반기 광주공장의 소형가전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한 동부대우전자가 이번엔 압축기 제조공장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공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해에도 부지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져 규모 줄이기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는 상황이다. 모 기업인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이유라고 하지만 지역 경제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23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최근 광주공장의 압축기(컴프레서) 제조공장 매각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이 공장은 광주공장의 주요 생산품인 대형냉장고와 에어컨에 들어가는 압축기를 전문 제조하는 부품공장으로, 중국과 멕시코 등 해외 공장에 보내는 물량을 합쳐 연간 120만대의 압축기를 생산하고 있다. 근무인원만 160여명에 달한다. 압축기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별도의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냉장고나 에어컨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이다.

앞서 동부대우전자는 지난해 광주공장 내 물류창고로 쓰이던 옛 융향공장 부지 3만㎡를 한 지역업체에 매각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개축

없이 부동산을 판 것이다. 이처럼 동부대우전자가 광주공장 규모 축소에 나선 것은 모 그룹의 유동성 위기 탓으로 풀이된다. 동부그룹은 지난해 동부제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뒤 자산매각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외부 수월이 어려워지자 내부자산을 잇따라 처분하게 됐고, 피해가 동부대우전자까지 확산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던 당시 동부그룹은 광주공장에 1500억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모 그룹이 위기를 맞으면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0여곳이 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한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부그룹이 인수한 뒤 투자보다는 원가절감을 이루

로 '단가 후려치기'에 몰두하자 이미 협력업체의 3분의1이 빠져나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동부에 편입된 뒤 투자나 제품 개선보다는 협력업체만 달달 부는 일이 잦아졌다"며 "이러다 멀쩡한 회사 말아먹고 손 털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성토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아직 압축기 공장의 매각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공장을 지속할지, 제휴처를 찾아볼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 노조원 30명은 23일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압축기공장 매각 반대 집회를 열고, 사측의 매각 시도 저지 행위에 들어갔다.

임동룡기자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8.39 (+6.94)
- ▲ 금리 (국고채 3년) 2.06% (+0.01)
- ▲ 코스닥 615.52 (+6.42)
- ▲ 환율 (USD) 1108.70원 (+6.90)



"지역민 원하는 곳 찾아가 금융서비스 제공"

광주은행 이동점포 차량 인기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난해 11월 도입한 이동점포 차량 '동네방네 찾아가는 은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은행 이동점포는 금융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금융 소외지역이 많은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를 지원하는 등 광주·전남 지방공공을 돌아다니며 지역민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과시간에 은행업무를 보기 어려운 직장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 등을 이용해 회사 앞에서 출동한 이동점포에서 통장 및 카드 발급부터 대출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평소 은행 방문을 어려워하던 외

국인 근로자들은 편리하게 계좌 개설 및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의 이동점포는 16t 조장속 트럭을 특수 개조한 차량에 상담장구 3개, ATM 2대 등 최신식 금융시설과 대형 고해상도 LED 전광판을 비롯한 최첨단 설비를 탑재했다. 더불어 은행권 최초로 자동화기기를 지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은행 이동점포 김정관 부부장은 "지역 축제 및 금융소외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동점포가 출범한지 3개월 만에 600여 회차를 개설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 출동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삼성증권 2월 호남포럼

2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삼성증권 호남사업부(부장 김태현 상무)가 주최하는 제2회 삼성증권 호남포럼이 25일 광주 서구 차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1부에서는 최재봉 성공관대교수가 최근 이슈인 'IoT 사물인터넷, 초(超)연결사회 넥스트 10년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향후 유망한 신사업에 대한 전망과 투자아이디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이 글로벌 경제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참석을 원하는 이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라도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062-380-15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학기 영패션 전문관 인기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영패션 전문관 '토버로니' 매장을 찾은 고객이 신학기를 대비, 가방과 넥타이 등 아이디어 패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금호고속 매각 본격화... 5000억원대 예상

IBK사모펀드, 금호아시아나에 매각가 제안

금호측 내달 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해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강력히 인수의지를 밝힌 금호고속의 매각이 본격화 됐다. 매각 가격은 5000억원대 안팎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고속 최대 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는 이날 오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매각가가 담긴 최종 매각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사모펀드 측은 매각 제안 공문에 금호고속의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한 매각가격만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고속의 지난해 기준 EBITDA(기업의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수준이 80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반영할 때 매각가격은 5000억원 내외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는 현금강

출 능력과 미래가치를 고려해 산정되는데 EBITDA에 7~8배를 적용해 가격을 산출한다. 금호고속은 비상장사인 만큼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지 않았다. 금호고속은 저유가에 힘입어 지난해 400억원대의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려 시장가치가 상승중이다.

사모펀드 측은 금호고속을 되팔아 5000억원 대의 자금을 회수해야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반해 금호아시아나는 줄곧 금호고속의 인수 가격을 2000억원대라고 주장해

왔다. 사모펀드가 금호고속을 인수할 당시 3310억원을 들였지만 금호고속에 전가한 차입금 2000억원과 배당금을 빼면 실질 인수가 가격이 91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호고속의 최종 매각 제안을 받은 금호아시아나는 인수금액을 검토한 뒤 3월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호아시아나가 내달 9일까지 사모펀드가 제시한 금호고속 매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면, 사모펀드 측은 곧바로 공개 매각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호고속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금호고속에 이어 그룹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도 2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밟는다. /임동룡기자xian@kwangju.co.kr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하세요"

NH농협손해보험

내달 20일까지 판매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국장 임정수)은 다음달 20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첫 판매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뽕은감 등 과수 5종과 원예시설이다.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이다.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태풍(강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시 병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원예시설에 대해 연중판매를 실시한다. 시설무·백화·카네이션 등 작물 3종을 신규로 추가해 보장품목을 46개까지 확대한다.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과수원별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00만원 이상이다.

특정위험 과수의 올해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병동상해 인정 피해를 70%형을 신설했다. 나무손해보장 자기부담율을 현행 100만원에서 자기부담비율 3%로 변경했으며, 신규가입시 평년작과량 산출 방법을 변경해 표준수확량의 100%로 인정 기준을 확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합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www.gochina.co.kr

233-9582 (중) 구오팔리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보안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